

학교현장실습 후기

- 실습 학교: 계성고등학교
- 실습 과목: 국어
- 실습 기간: 23.05.01 ~ 23.05.26

1. 현장실습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대학 생활 4년간 손꼽아 기다리던 교생 실습이 끝났다.

첫날 1학년 7반 교실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상황에 따라 좌우명이 바뀌는 편인데 실습을 시작한 지금 제 좌우명은 ‘꼼꼼히 준비하면 설렘이 두려움을 압도하게 된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 지금 너무 떨리지만 그간 준비하며 손꼽아 기다려온 시간이기에 설렘으로 가득

한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이다. 실습하며 느낀 것은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라는 점이였다. 돌이켜보면 힘들고 지친 날보다 빵긋빵긋 웃은 날이 더 많

았던 것 같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았다. 특히 가장 좋았던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반 아이들과 상담하며 나눈 이야기, 국어 수업 중 인

생 그래프 그리기를 통해 들여다본 아이들의 이야기, 교생 선생님들과 나눈 소중한 이야기들!

‘나는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하며 또 한 번 깨달았다. 학과 전공 수업에서 시연

을 할 때와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확연히 달랐다. 많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조는

아이들을 깨우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수업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실제 학

교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달이 참 소중한 시간이였다.

2. 교직에 대해 생각하게 된 점(향후 진로계획에 적용할 점, 각오 등)

현장실습을 하기 전부터 교직에 뜻이 있었고, 그렇기에 실습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실습을 다

녀온 후 지금도 교직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 특히 지도교사 선생님과 나눈 대화들이 참 소중

했다. 선생님께서는 교생 실습이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교사가 되겠다는 확고한 마음이 생겼다

고 말씀하셨다. 지금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임용고시 준비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고 계셨다. 졸

업 후 무엇을 할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 일을 하며 공부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런데 그 전에 임용고시 공부를 1년 이상 깊게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우선 깊게 한 번 공

부를 해둬야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는 조언을 들었다. 국어교육과 유아교육을

복수전공하며 어느 기관으로 나아갈지도 고민이었는데 이 고민은 하계 보육 실습이 끝나야 답이

나올 것 같다.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어느 쪽이든 꼭 선생님을 하면 좋겠다고, 좋은 교사가 될 자질

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교육실습생이 아닌 교사의 신분으

로 학교에서 학생들과 마주하고 싶다.

3. 현장실습 학교의 특징 및 알아두어야 할 점

(예: 학교 교육의 특징 - 영어중점학교, 학생들의 특징 등)

내가 현장실습을 했던 학교는 이제 대구에 유일하게 남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였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특히 진로 관련 경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그래서 마치 대학교처럼 진로정보박람회, 토론형 고전 읽기 수업 등 일반 고등학교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리고 미션스쿨이라 하루 일과 속에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적이었다. 매일 아침 선교반장이 교탁 앞으로 나와 오늘의 말씀을 읽고 간단한 기도를 하고, 종교 수업이 일주일에 한 시간 시수를 차지했다.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고, '대수양회'라는 학교의 큰 행사 또한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마치 축제처럼 크게 열려 학생들이 종교에 대한 거부감 없이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다.

4. 현장실습을 가게 될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

수업을 할 때 간식을 준비하는 교생 선생님들이 많았다. 발표를 하거나 수업에 잘 집중한 학생에게 상으로 주는 간식이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짧았고 오히려 간식이 없으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등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 그래서 간식이 아닌 오로지 나의 수업 역량만을 가지고 준비하면 더 값진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과 친해지기에 한 달은 매우 짧았다. 아이들과 친해지기 어렵다며 속상해하기보단, 점심시간에 교실로 가서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며 이름을 외우니 수업을 할 때도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료 교생 선생님들과 친해지며 고민도 나누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실습 한 달의 기억을 나중에 함께 떠올리고 추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친해져서 오래오래 잘 지내는 사이로 남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3. 06. 09

제출자 소속(학과/전공):

성 명: 이수영 (서명) **이수영**

교직홈페이지 탑재 동의 여부[해당란에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학과(전공) 공개	성명, 학과(전공) 미공개	
○		

※ 교육실습을 통하여 크게 배운 점, 앞으로 교직을 대하는 자세 등 자기 평가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 탑재에 동의한 후기는 교무·교직팀의 심의를 거쳐 교직 홈페이지에 탑재 예정임

※ 서식은 교직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http://newcms.kmu.ac.kr/teach/802/subview.do>)